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혁명적 신념은 값높은 삶의 밑뿌리이다

원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그 어떤 책에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걸어온 자취에서 찾는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북창은하리북공장 지배인 김광수동무.

그는 지망의 한계 풍장을 찍었던 평범한 일꾼이다. 하지만 그가 세겨온 삶의 자취자취는 시대를 울리는 메아리가 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신념과 의지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신념과 의지로 하여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입니다.》**

김광수지배인이 지난 10여년간 거둔 성과도 대단했지만 우리는 그 자로부터 그것을 알아야 하는 비결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다. 하지만 그는 모든 종업원들을 종로가 아니라 황제로 세우고싶었다.

출발선도 함께, 결승선도 함께!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을 3대혁명붉은기정취운동에서 찾았다. 일부 일꾼들과 종업원들중에서 선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될 때 초급당원직장이 그 때 명백한 대답을 주었다.

《고지를 정복하자면 기압이 있어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세류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풍장을 입혀주세요!》

김광수동무는 당조직의 지도 밑에 높이 세운 대중운동의 목표를 하루하루 정경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거운 임무를 걸고지고 맡아 실행하도록 꾸민다. **《출발선은 붉은기 정취와 함께, 결승선은 붉은기 정취와 함께》**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일꾼들에게 어떤 기분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여기서 재봉기소리를 들으며 주사나 한 대는 맞고도 그만인걸 가지지. 재발 소름을 머슴치 마오.》**

김광수동무는 말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장으로 달려나와 《장군님따라 친안리》라는 글밥 앞에 섰다.

불편의 이 궤도에 잠시나마 머무름을 만들려 했던 자신에게 사정없이 제재를 없으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의 성과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용감하게 도전 도전 도전하자.)

이렇게 그는 또다시 출발선에 나섰다. 이번의 결승선은 2중 3대혁명붉은기정취였다.

파괴회수운을 높여나갔다. 그의 단결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몇몇몇 김광수동무는 당조직의 지시만에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하였다. 6층짜리 덩치만 생산전력을 공장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지배인의 제안을 놓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환혼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내성들의 힘으로 그것도 6개월동안에 완공된 건설공사를 해낸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를 두고 김광수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정신이 아니었던 그때 어떻게 되어 출장길에 섰을 나에서 성과는 있었지만 신념의 밑뿌리였다.》**

그는 모를수 있다. 그러나 신념을 제정하면 사람만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은 안다.

이런 신념의 강자였기에 김광수동무는 언제나 대담한 작전과 용감한 실천으로 풍장이 2중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눈부신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이렇듯 혁명적신념은 용감성을 낳는 어머니였다.

신념과 첫 걸음

천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함을 이르는 뜻이다. 김광수동무가 내딛은 첫걸음이 바로 그것이다.

12년전 그가 지배인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풍장은 비약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놓여있었다.

해마다 계획을 미달하는 생산수치를 보아도 그렇고 이비진 생산공정들과 제비식제봉기를 비롯한 뒤떨어진 실비들, 자그마한 건물들이 전부인 공장 분위기와도 별이나 다를없는 후방사업 등 그 어느 하나도 마음에 차는것이 없었다. 과연 어떤 곳에 누가 정이 들라. 그러나 종업원들의 출근률이 떨어질수밖에 없었다.

무기로 삼고 우선 자신을 이기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 자기 부문을 우선 위대한 수명님들의 고전적로라들과 교섭, 당정책을 뼈대 세김수속 교섭의 뿌리는 더욱 역세되었다. 혁명의 길은 혼자서는 갈수 없는 길이다.

그는 밤마다 출근하지 못하는 종업원들의 집문을 두드렸다. 자제가 아닌 생산을 못하는데 왜 온 지배인은 출장길을 떠나지 않고 마음깊인 말한다는 말이 들리웠지만 그는 절음을 멈추지 않았다. 생산보다 종업원들이 더 귀중했다. 그들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때만이 풍장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래서 임금을 안고 정을 안고 찾아온 종업원들의 마음을 흔흔 하나하나 열어나갔다.

《고지를 정복하자면 기압이 있어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세류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풍장을 입혀주세요!》

김광수동무는 당조직의 지도 밑에 높이 세운 대중운동의 목표를 하루하루 정경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거운 임무를 걸고지고 맡아 실행하도록 꾸민다. **《출발선은 붉은기 정취와 함께, 결승선은 붉은기 정취와 함께》**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일꾼들에게 어떤 기분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여기서 재봉기소리를 들으며 주사나 한 대는 맞고도 그만인걸 가지지. 재발 소름을 머슴치 마오.》**

김광수동무는 말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장으로 달려나와 《장군님따라 친안리》라는 글밥 앞에 섰다.

불편의 이 궤도에 잠시나마 머무름을 만들려 했던 자신에게 사정없이 제재를 없으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의 성과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용감하게 도전 도전 도전하자.)

이렇게 그는 또다시 출발선에 나섰다. 이번의 결승선은 2중 3대혁명붉은기정취였다.

파괴회수운을 높여나갔다. 그의 단결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몇몇몇 김광수동무는 당조직의 지시만에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하였다. 6층짜리 덩치만 생산전력을 공장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지배인의 제안을 놓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환혼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내성들의 힘으로 그것도 6개월동안에 완공된 건설공사를 해낸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를 두고 김광수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정신이 아니었던 그때 어떻게 되어 출장길에 섰을 나에서 성과는 있었지만 신념의 밑뿌리였다.》**

그는 모를수 있다. 그러나 신념을 제정하면 사람만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은 안다.

이런 신념의 강자였기에 김광수동무는 언제나 대담한 작전과 용감한 실천으로 풍장이 2중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눈부신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이렇듯 혁명적신념은 용감성을 낳는 어머니였다.

행동을 할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은 안다.

이런 신념의 강자였기에 김광수동무는 언제나 대담한 작전과 용감한 실천으로 풍장이 2중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눈부신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이렇듯 혁명적신념은 용감성을 낳는 어머니였다.

신념과 첫 걸음

천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함을 이르는 뜻이다. 김광수동무가 내딛은 첫걸음이 바로 그것이다.

12년전 그가 지배인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풍장은 비약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놓여있었다.

해마다 계획을 미달하는 생산수치를 보아도 그렇고 이비진 생산공정들과 제비식제봉기를 비롯한 뒤떨어진 실비들, 자그마한 건물들이 전부인 공장 분위기와도 별이나 다를없는 후방사업 등 그 어느 하나도 마음에 차는것이 없었다. 과연 어떤 곳에 누가 정이 들라. 그러나 종업원들의 출근률이 떨어질수밖에 없었다.

무기로 삼고 우선 자신을 이기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 자기 부문을 우선 위대한 수명님들의 고전적로라들과 교섭, 당정책을 뼈대 세김수속 교섭의 뿌리는 더욱 역세되었다. 혁명의 길은 혼자서는 갈수 없는 길이다.

그는 밤마다 출근하지 못하는 종업원들의 집문을 두드렸다. 자제가 아닌 생산을 못하는데 왜 온 지배인은 출장길을 떠나지 않고 마음깊인 말한다는 말이 들리웠지만 그는 절음을 멈추지 않았다. 생산보다 종업원들이 더 귀중했다. 그들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때만이 풍장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래서 임금을 안고 정을 안고 찾아온 종업원들의 마음을 흔흔 하나하나 열어나갔다.

《고지를 정복하자면 기압이 있어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세류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풍장을 입혀주세요!》

김광수동무는 당조직의 지도 밑에 높이 세운 대중운동의 목표를 하루하루 정경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거운 임무를 걸고지고 맡아 실행하도록 꾸민다. **《출발선은 붉은기 정취와 함께, 결승선은 붉은기 정취와 함께》**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일꾼들에게 어떤 기분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여기서 재봉기소리를 들으며 주사나 한 대는 맞고도 그만인걸 가지지. 재발 소름을 머슴치 마오.》**

김광수동무는 말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장으로 달려나와 《장군님따라 친안리》라는 글밥 앞에 섰다.

불편의 이 궤도에 잠시나마 머무름을 만들려 했던 자신에게 사정없이 제재를 없으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의 성과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용감하게 도전 도전 도전하자.)

이렇게 그는 또다시 출발선에 나섰다. 이번의 결승선은 2중 3대혁명붉은기정취였다.

파괴회수운을 높여나갔다. 그의 단결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몇몇몇 김광수동무는 당조직의 지시만에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하였다. 6층짜리 덩치만 생산전력을 공장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지배인의 제안을 놓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환혼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내성들의 힘으로 그것도 6개월동안에 완공된 건설공사를 해낸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를 두고 김광수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정신이 아니었던 그때 어떻게 되어 출장길에 섰을 나에서 성과는 있었지만 신념의 밑뿌리였다.》**

그는 모를수 있다. 그러나 신념을 제정하면 사람만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은 안다.

이런 신념의 강자였기에 김광수동무는 언제나 대담한 작전과 용감한 실천으로 풍장이 2중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눈부신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이렇듯 혁명적신념은 용감성을 낳는 어머니였다.

행동을 할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은 안다.

이런 신념의 강자였기에 김광수동무는 언제나 대담한 작전과 용감한 실천으로 풍장이 2중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눈부신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이렇듯 혁명적신념은 용감성을 낳는 어머니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년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6일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진보적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활히 밝혀 주신 경세위인들에 대한 다름없는 정서로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왔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세계보건기구 부총장과 박영희 교수의 정유로 시하였다.

독자의 편지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보건의료는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관심적정을 모르고 건강할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의료입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어주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의료의 한없는 고마움에 대하여 온 세상에 소리로 지향하고싶어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태어나 3살이 되도록 선선적인 질병때문에 자라는데 일이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불구가 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슨 치료법을 찾았는지 물어보았습니까.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정성을 기울였지만 워낙 난치성질병이

이런 의료일군을 자랑합니다

어서 큰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하고 아들의 병을 고칠 카망도 보이지 않아 어머니인 저자신도 절망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저는 보건성 고려약생관관리국이며 명당 고려약방 연구사인 류일성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들의 상태를 보더니 자기와 연구한것인데 한번 제보라고 하면서 주사약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 주사약으로 말하면 류일성선생님의 아버지때부터 시작하여 한가정에서 대를 이어오며 연구해는 주사약을 했습니다. 류일성선생님은 아들과 비로써 병을 앓은적이 있는 환자분의 치료경험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아픈물과 시료등을 안겨 주면서 치료과정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갔습니다.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

능률높은 강냉이파종기 연구개발

농업성 농기계연구소에서

이 농기계는 연구개발되기까지는 연구소의 실장이었던 한원길동무와 연구사 중경식동무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의 불타는 탐구와 숨은 노력 이 뜨겁게 불어넣었다.

로력절약형기계, 일꾼들을 놀림으로 있는 기계들 많이 생산할데 대한 경제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신장에 세진 한원길동무는 새로운 강냉이파종기를 설계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분원들 탐독하면서 사색을 기울였다.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지방특성과 우리

충정의 한마음 오늘도 변함없이

사리원시 풍성동 61인민반 정경희로인

군인가속지체는 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질병의 굶이굶이에 코스트를 비롯한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가꾸었다.

제대된 남편을 따라 사리원시에 살림을 본 다음에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향기로운 꽃들을 정성다해 피웠다.

인민군부대 지휘관으로 복무하던 남편이 제대되어 생을 마치는 순간에도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고 바라던 소원은 다음날인 우리 수령님들을 향기그득한 꽃속에 모시는 바로 그것이었다.



세계보건기구 부총장일행 도착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도착

2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는 관계부서 일꾼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까라르에 가는 보건성대표단 출발

강화국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성대표단이 까라르의 도하에서 진행되는 세계적인 보건혁신을 위한 회의에 참가

세계보건기구 부총장일행 도착

올해그 웨스뜨노브 세계보건기구 부총장과 일행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라고 할 때면 로인은 최천원소마을에서의 신혼시절에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격정속에 들려주곤 했다.

《우리 수령님들과 북한과 더불어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쁨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남침 등을 모르겠구나.》

이런 소중한 마음만큼 충성의 길을 걸고있는 정경희로인이다. 손자, 손녀들이 박진, 박진 주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꽃피듯 방담 부나 낚이는 낚대로 꽃피를 마련하기 위하여 밤이 깊어도 어머님을 다녔고 밤이 깊어도 꽃피프랑으로 시간가는줄도 몰랐다.

아들 박광호동무와 며느리 정영숙동무가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몸을 좀 돌보면서 일하

본사기자 김영철

